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제 18호 2011년 4월 1일

SBS 사우회보

발행처 SBS사우회 150-8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 태양빌딩 605호 Tel 02)783-0590~1 Fax 02)785-9805 E-mail sbssau@hanmail.net 발행인 임형두 편집인 이시권 편집디자인 이레기획

사우회 2011년도 정기총회 개최 이진용, 이충기 감사 2인 연임



사단법인 SBS사우회 2011년도 정기총회가 2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총회는 제1호 의안 감사선임의 건에서 이진용, 이충기 감사를 연임, 의결했다. 또한 제2호 의안인 정관변경의 건, 제3호 의안 2010년도 수지결산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2011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 전원은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즐기며 우정을 나눴다.

윤세영 회장 '그룹 명예회장'에 추대



윤세영 명예회장

2월 22일, 본사 주주총회에서는 윤세영 사우회 명예회장을 'SBS 그룹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하금열 의장

한편, 하금열 SBS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을 SBS 이사회 의장에 겸임케 했다. 또한 임형두 사우회장은 SBS미디어홀딩스 감사에 연임되었다.



임형두 감사

3월 운영위원회의 34차 회의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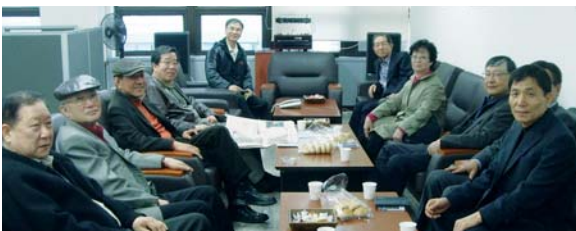
사우회 창립 이래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운영위원회의가 34차 회의를 가졌다. 부문별 대표성을 가진 위원 25명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달 모여 사우회의 운영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 임형두 사우회장은 "SBS 사우회가 발전적 모임체로 성장하여 외부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는데는 운영위원들의 노고가 절대적임"을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새로운 동호회 2개 더 늘어

'여성동호회', '음악감상동호회' 신설

회원들의 친목을 우선으로 하는 사우회 운영계획에 발맞춰 동호회가 2개 더 신설됐다. '여성동호회'는 여성회원만으로 구성되며 독서토론을 주로 하여 다양한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게 된다. 회장에 변순복, 부회장 이영혜, 총무 신선미 사우를 운영진으로 추대했다. '음악감상동호회'는 오디오 기기를 사우회 사무실에 설치하고 수준 높고 다양한 음악감상 기회를 갖게 된다. 회장 최경수, 총무 강동하 사우가 운영을 맡았다.

3월 19일, 첫 모임에서는 바이올린, 첼로, 가요모음곡과 장사의 노래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감상했으며 기념을 반을 제작해 나누어 주기도 했다. 음악감상동호회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임을 갖기로 했다.



'여성동호회' 발족모임 가져

2월 22일, 신사동 소재 음식점에서 열린 여성동호회 발족모임에는 모두 14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의논하며 우의를 다졌다. 참석회원은 김영란, 류지현, 박수정, 변순복, 신선미, 왕수현, 우은진, 윤혜정, 이영혜, 장영희, 장윤정, 조유정, 조희수, 호정은 사우.

2011년도 건강검진 3월부터 시행

본사 직원들과 같은 조건으로 받게 되는 금년도 종합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기본검진 30만원, 추가정밀검사비는 40만원이며 병원별 추가정밀검사비교표는 사우회 카페(<http://cafe.daum.net/sbssau>)에서 볼 수 있으며 검진 받기를 원하는 사우는 사무처(02-783-0591)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검진장소가 변경된 곳이 있는데 강북삼성병원 은태평로 구 삼성분관 B1, 서울성모병원은 별관2층 기업건강증진센터, 여의도성모병원은 본관 12층에서, 하트스캔은 포스코 4거리 삼성동빌딩 B1에서 검진한다.

신입회원 (1월 ~ 3월 가입자)

김한중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단지	010-3742-8461
류지현	서울 용산구 한남동	010-8747-3673
박준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단지	010-5297-5460
서경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010-3775-4550
원종화	서울 서초구 반포동	010-5236-0784
유협	서울 양천구 목동	010-5242-7182
윤영미	서울 용산구 용산2동	010-8939-0331
이기석	서울 서초구 잠원동	010-5472-9475
이상근	서울 서초구 잠원동	010-5384-9964
이승열	서울 서초구 서초동	010-3898-9370
최금락	서울 용산구 이촌1동	010-3720-2004
최상담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010-5253-0525
호정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010-6360-3694

* 사우회 동호회 현황 *

동호회명	회장	총무	비고
골프	이충기	천영일	
낚시	임종철	김명철	
등산	유용우	성준호	
바둑	윤충의	박오종	
문화예술	이재명	김정민	
여성	변순복	신선미	부회장/이영혜
음악감상	최경수	강동하	
트레킹	박건삼	이찬희	

가입은 수시로 가능하며 사무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02-783-0591/sbssau@hanmail.net)

'남이섬'에서 봄나들이 어때요?

사우회 봄 축제인 '춘계 야유회'가 꽃피고 새우는 계절의 여왕 5월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이섬'과 춘천 주변을 찾아가 봄의 향기를 흠뻑 들며 마시고자 합니다. 많은 사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잘 골라 개별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5월과 사우회, 왠지 어울리는 단어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社友 인터뷰 / 2년 연속 우수기관장 평가받은 한국조폐공사 사장 전용학 사우



충남 아산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 MBC 정치부 기자, SBS 정치·국제부장, SBS 8시 뉴스 앵커, 한나라당 제2사무총장, 16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는 한국조폐공사 사장인 전용학 사우. 취임 2년 7개월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 사우 인터뷰에서 만나봤다.

한국조폐공사 사장 임기 3년 중 이제 반년밖에 남지 않았군요. 부임 후 정부의 공기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장으로 평가 받았으니 성공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말해도 되겠지요?

“지난 2년 반 동안 큰 대과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해 준 회원

SBS 출신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사업량 급감 등 어려웠던 경영 여건을 극복하고 올해는 우리 공사 경영 화두를 승풍파랑(乘風破浪)으로 정해서, 도전적으로 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연초부터 외국 제품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임기까지 잘해서 SBS 출신은 다르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기자 시절 정치 경력 등과 비교해 공기업 사장직을 맡고 있는 소화가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언론인으로 사회부, 정치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기업 경영은 생소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을 익히고 부딪쳐 보는 것이 너무나 해보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였습니다. 조폐공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조찬행사, 세미나 등을 찾아 다니며 배우기도 했고 공부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등록해 4학기를 마치고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조폐공사에는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이 많아서 함께 일하며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금년 1월 출신학교인 천안고등학교 총동창회장에 취임했다군요.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군요.

“천안고등학교 재학시절이나 대학 재학시절에도 모교 장학

금을 받는 등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천안고 출신 중 국회의원도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정치과정에서도 동문들의 힘이 컸습니다. 작은 보답이라도 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BS 사우회 사무실은 한 번밖에 안 들렀는데, 회원들에게 지면으로도 인사하시지요.

“사우회 회원 여러분께 삼가 인사드립니다. 회사가 대전에 있고 보안제품 제조라는 특성상 정부 부처나 특정한 곳과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죄스러운 과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는 자주 방문하여 선배님들과 친교를 맺겠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세우고 있겠지요? 민감한 질문 같지만 2012년 총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성원도 감사되던데요.

지금은 조폐공사 사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BS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나라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일을 더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은혜가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정리/ 이시권 편집장

사우 동정



정 동 천 사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www.kocca.kr)는 1월 10일, 기반지원 부원장에 승진 보임됐다. 산하에 기반조성본부, 경영지원본부 및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 업무가 있다.



이 승 열 사우는 하이트·진로그룹 (http://webzine.hite-jiro.com) 기업문화실장(전 무급)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룹의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홍 용 락 사우(동아방송대 교수)는 금년 초 한국방송콘텐츠연구회 회장, 한국홍보학회 부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홍보지원위원 등 한꺼번에 많은 일을 맡아 바쁘지만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유 자 효 사우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부회장)가 부산일보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재한 칼럼을 모아 책으로 발간했다. ‘나는 희망을 보았다’는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저자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풀어 쓴, ‘체온’이 담겨 있는 글로 이뤄졌다. 우리 문화와 사회의 실상에 대하여 간결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문체로 시대의 양지와 음모를 잘 짚어낸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요아침 발행 / 192쪽 / 9천원)



문 정 수 사우(사우회 미래기획팀)는 (주)펜엔터테인먼트(www.thepen.co.kr) 드라마부문 사장으로 선임됐으며 MBC 월화드라마 <짝패>를 제작 방송하고 있다.



정 영 덕 사우(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는 법률방송(www.court.tv.kr) 상임고문에 취임했다.



이 시 권 사우(사우회 기획이사)는 3월 2일,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www.codatv.or.kr)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이 궁 사우(주레이토피아 대표이사)는 3월 17일, 청주방송(www.cbco.kr)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되어 22일에 취임식을 가졌다.



유 현 사우는 건국대학교가 건립하는 컨트리클럽 “스마트 KU 파빌리온” 대표이사에게 선임됐다. 8월에 개장하게 되는 이 골프장은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에 있다.

경 조 사 항

■ 부음

1월 3일 정일종 부친상 1월 8일 이기석 병부상
1월 29일 김홍덕 병부상 2월 28일 이창섭 병부상
3월 25일 홍용락 부친상

■ 결혼

2월 12일 김기성 장남 2월 26일 권오형 장녀
3월 27일 정일종 장녀

■ 고회 축하

3월 3일 소속자

증신회비 내신 회원(각 20만원)

최금락, 원종화, 이기석, 김용정, 최상당, 박수정, 임종철, 정동천, 백종우, 김학호, 김문중, 윤인성, 서경수, 이승열, 이종수

연회비 내신 회원(각 2만원 1월~3월)

권재홍, 김경환, 김기성, 김만수, 김성우, 김종엽, 김지혁, 김한옥, 김혜란, 노기운, 맹형규, 문근, 박광호, 박세호, 박연태, 박재규, 박지용, 서강덕, 서상정, 소속자, 신영애, 유재순, 유정, 윤공섭, 윤동혁, 윤두병, 이인성, 이취형, 이현호, 임경수, 임영규, 전윤표, 조용대, 조용호, 조현용, 최혜욱

■ 회비납부 계좌 ■

우리은행 1006-901-277104
예금주 : (사) 에스비에스사우회

취미는 즐거움이요 즐거움은 행복, 그리고 인생



이 내 한 말 들어 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 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허면
단 사십도 못 살 인생.

아차, 한 번 죽어지면 북방산천의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불여 생전의 일배주만도 못허느니라.

작자 미상의 단가(短歌) '사철가' 한 대목이다. 작년 국악방송 사장으로 취임 후 국악과 친해지고 싶어 한 3개월 소리를 배웠다. 어설피긴 했지만 꽤 재미가 있었다. 우리 집 사람도 요즘엔 가야금 배우기에 열심이다.

방송국 PD시절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젊어서부터 취미 하나를 몸에 지니라는 조언을 해 주셨다. 취미가 전문 영역까지 가면 인생 후반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말씀도 곁들어서. 나도 전적으로 동의는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사진을 배우려고 따라 다니다가 그도 흐지부지. 허나 그 때 배운 게 구도를 잡는 데 꽤 도움이 되긴 했다. 그림을 그리면 좋겠구나, 희망은 했지만 소질이 별로였다. 지금도 엄광석 사우나 KBS 김충길 PD 그림을 보면 그 분들 전문 경지의 취미가 부럽긴 마찬가지다.

나는 쏘다니는 걸 좋아해서 튼튼한 두 다리를 무기로 산악회를 많이 따라 다녔다. 퇴임 후에도 이 산 저 산, 산을 누비고 싶었지만 아꼐싸 무릎에 무리가 왔다. 그리고 참 힘든 시절 詩가 나를 찾아 왔다. 유자호 사우의 도움이 컸다. 그 전에 만화 영화 주제가 작사 등 사십 곡에 가까운 작사를 해오긴 해도 느즈막에 시작한 거라 발표한 시보다 찢어버린 시가 수백편이 된다. 계속 시를 쓰고 싶다. 그리고 쓸 것이다. 지난 겨울은 춥기도 하지만 눈도 많았다. 메모를 했다.

휴우-/ 오늘도 담배 한 대 꼬나물고 테라스로 나간다./ 우휴-/ 먼 산이 내 독한 니코틴 달게 빨아들인다.// 너, 참 춥겠구나./ 이 겨우 내내 눈에 덮혀서/ 아니에요./ 하얀 숨이불이 얼마나 따뜻한데요// 어느새 봄소식 물고 날 아드는 까치 한 쌍/ 까야 깧-/ 그 말이 맞아, 맞고말고./ 깧 까악- 깧 까악-// 먼 친구 훌쩍 다녀가는/ 아, 참 따뜻한 이 한 겨울

박동주의 '너섬' 속 '나섬이'

봄날 꿈의 전령사

연평도의 봄, 평화의 계절
북아프리카의 봄, 재스민 향기 民主花의 계절
사우회의 봄, 욕망의 계절 야호~回春아!
그럼 SBS의 봄은?... 내일을 봄

5월 야유회 동심의 소풍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걱정 말지어다
무릉도원에 진수성찬 있을지니
야유회 불참시 받는 선물은 야유(?) 한 상자

여성동호회, 음악감상동호회 탄생!

여풍당당 시크릿 가든 문이 열리고
사우회 협주곡? 아름다운 선율로 귀가 열리네
그대들의 이름은 동호회 종결자

아침 운동 VS 밤 운동

봄이 찾아오자 도심의 공원과 주변 산에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운동은 새벽과 밤, 두 부류로 나뉘는데 최근엔 새벽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밤에 걷거나 조깅하는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증가되고 비만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아침 운동과 야간 운동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운동도 짙은 안개가 낀 새벽은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해롭다고 걱정하나 심한 천식, 알레르기 질환을 갖지 않았다면 큰 위험은 없습니다.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기관지를 통과하면서 불순 물질의 대부분이 걸러져 배출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나쁜 공기가 해로울 수 있지만 정상인들의 건강을 급격히 해칠 정도는 아닙니다.

그 보다는 준비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준비운동은 신체를 안정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서서히 변화시키고 체온을 상승시켜 근육 및 관절 부위의 가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며 혈류의 흐름을 증가시켜 신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해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야간 운동은 쫓기듯 서둘러야 하는 새벽보다는 훨씬 느긋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고 숲자리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카고대에서 오후 7시 이후에 하는 운동이 낮에 하는 운동보다 운동 효율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후 7시 무렵에 운동을 하면 부신피질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량이 빠르게 늘어나 신체의 각성도를 높여 운동 효율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야간 운동은 햇볕에 의한 자외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야간 운동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뇌에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호르몬은 성인의 면역력 증강과 노화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짧은 시간 강도 높은 운동은 새벽에, 긴 시간 강도 낮은 운동은 야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와 가벼운 조깅 등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이 야간에 적합합니다. 야간 운동은 운동효과 외에 하루 동안 스트레스로 지친 자율신경을 풀어줌으로써 소화불량, 두통, 요통, 변비, 설사, 불면증 등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운동 후에는 사우나나 온탕 욕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아침운동>은 오전 6시~8시 사이 식전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좋다. 심폐 지구력과 근력 향상, 비만 해소에 좋으나 뇌졸중과 심장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뇌와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안개가 낀 도심에선 심한 운동을 자제 하여야 한다. 적절한 운동으로는 구기과 텀벨운동, 달리기 등이 있다.

<야간운동>은 오후 7시~10시 사이 식후에 하는 것이 좋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면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좋다. 혈당을 떨어뜨리며 밤중에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환자에게 좋다. 지나친 운동은 금물. 특히 잠자기 1시간 전에 운동을 마치는 게 좋다. 요통환자는 골프연습이나 볼링을 자제해야 한다. 적절한 운동으로는 걷기와 맨손체조, 가벼운 조깅을 들 수 있다.

단신

SBS, 2011 방통위 방송대상 수상 쾌거

〈대한민국 해양대탐험〉, 〈잊혀진 전쟁 60년, 잊지 못할 가요 60년〉, 〈아나운서팀〉 수상



「20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SBS가 우수상 2편과 아나운서팀이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방송된 프로그램 중 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3월 7일(월) 롯데호텔에서 방송통신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SBS는 창의 발전 부문에서 SBS스페셜 <대한민국 해양대탐험>이, 라디오 부문에서는 한국전쟁 60주년 특집 <잊혀진 전쟁

60년, 잊지 못할 가요 60년>이, 바른방송언어상 부문에 <아나운서팀>이 각각 수상했다.

본사 신임 총무팀장 사우회 방문

사우회 지원에 적극 관심 표명

사우회 지원담당 본사 새 총무팀장으로 발령받은 박종필 부국장이 2월 16일 처음으로 사우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팀장은 사우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을 약속했고 몇 가지 구체적인 안을 피력하기도 했다.



장상훈 사우의 '이런 맛 집 아세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식욕이 살아나고 봄별을 썰러 가고 싶은 욕구도 높아기 마련. 그럼에도 이유없이 나른해지거나 입맛도 살아나지 않고 만사가 귀찮아지기도 하는데 혹시 나이가 들었다는 증상일까?

프로덕션 경영식 음식관련 PD로, 지금은 을지로 동표골뱅이 대표이사로 이 코너를 맡아 준 장상훈 사우의 맛집 정보를 통해 입맛을 되살려 보시길...

- 편집자 주 -

개코네 막회 (031-901-6860)

일산신도시의 백석동 13블럭 백신초등학교 옆 주택가에 위치한 조금은 외진 곳에 정직하고 부지런한 주인공의 솜씨를 밑천으로 4계절 귀한 제철 자연산 잡어를 동해와 남해에서 당일 산지 직송으로 매일매일 공수받는 집이다. 손님이 많아 음식이 일찍 떨어지면 문을 닫는

곳으로도 유명하니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전화 확인을 해주는 센스가 필요!! 주 메뉴는 4~5종류의 자연산 잡어회(대 5만원-4인, 중 3만5천원-2인)와 자연산 잡어 불회(12,000원), 팬빙이(15,000원)가 양도 푸짐하게 차려진다. 식사로는 잡어 비빔밥, 섬국, 물회국수(점심한정 5,000원), 제철 곰치탕(계절마다 다른데 약 2~3인분 25,000원)이 일품이며 별미로 후라이드 골뱅이와 생 오징어 튀김(각15,000원)이 인기 짝이다.



음식이 깔끔하고 맛이 좋아 소문났지만 무엇보다 착한 가격으로 가족, 동료 누구와 함께라도 부담없이 자연산 생선회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정평이 자자하다.

오근내 닭갈비 (02-797-0131)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춘천의 대표 먹거리인 닭갈비가 새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닭갈비의 유래는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숯불 닭갈비>란 이름으로 첫 선을 보인 이후 '철판 닭갈비' 함께 크게 2종류가 구분한다. 본래는 숯불을 이용했지만 음식 조리 때



발생하는 자욱한 연기도 즐기고 또 집집마다 갖가지 첨가 양념의 진화로 현재는 철판이 대체이다. 춘천의 대표 먹거리인 닭갈비를 맛보기 위해 시간을 내어 춘천까지 가지 않고 서울에서 즐기기에 서부 이촌동 철길 옆 소박하게 자리한 오근내(춘천의 옛 지명)란 곳이 제격이다. 이 집의 특징은 저렴한 냉동 수입육을 사용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100% 국내산 생닭을 쓴다는 것과 갖가지 좋은 갈비양념의 비법과 더불어 자체 발효 숙성의 노하우를 가지고 승부하는 집으로도 유명하다. 본래는 남양주 덕소에서 1세대가 오랜 세월 했고 그 따님이 이촌동에 분가를 해서 운영하는 집인데 생닭임에도 1인분에 9천원에 모든 사리(떡, 고구마, 각종 채소 등.)는 2천원에 추가!! 특히 남은 양념에 비벼 철판에 볶아내는 볶음밥은 이 집만의 별미 중 별미로 손꼽힌다.

www.sbsnewtech.co.kr

TV 영상·제작·기술 전문회사 SBS뉴스텍이 방통융합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 중계기술 - 대형행사의 중계자와 중계 카메라를 운영합니다.
- 뉴스제작 - 뉴스 진행 및 송출과 해외 위성 송수신을 책임집니다.
- 영상제작 - 드라마 야외촬영과 특수촬영을 전문으로 합니다.
- 영상취재 - 뉴스 현장의 진실을 촬영합니다.
- 영상편집 - 취재된 영상과 자료화면을 선택하여 편집합니다.
- 보도CG - 상상의 세계를 그래픽으로 표현합니다.
- 전략사업 - 방송 기술 SI 사업과 영상 사업을 총괄합니다.

대표전화 (02) 2113-5999



www.sbsnewtech.co.kr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번지 SBS 방송센터

중계차 임대 / 해외위성 송수신 / 방식변환 / 야외촬영 / 특수촬영 / 3D 컴퓨터그래픽 / HD 방송시스템 구축 / IT 네트워크 / 멀티미디어 A/V 시스템